

## 【 해외금융 뉴스: 중국 】

## 외자손보사, 상하이 책임보험 · 운송보험 시장에서 선전

- 상하이보험업조합(上海市保險同業公會)이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은 상하이 책임보험 및 운송보험 시장에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남.
  - 상하이 손해보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AIU(美亞), 도쿄해상(東京海上), 핑타이(豐泰), 황자태양(皇家太陽), 취보(丘博), 삼성화재 등 9개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약 9.8%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전체 보험시장에서 10%를 상회하고 있는 상하이 책임보험과 운송보험 시장규모는 각각 5.4억 위안, 5.3억 위안(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이 중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은 각각 40.4%와 47.2%의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임.
  
- 외자계 손해보험사들이 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업계는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자동차 책임보험 사업 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 정책을 지적하고 있음.
  - 외자계 보험회사들에게 자동차 책임보험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정책 효과에 힘입어 자동차보험 시장을 독점 중인 중국 손해보험회사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실적이 크게 하락한 반면,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은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분석임.
  - 또한 자동차보험시장 진입 규제 정책으로 인해 외자계 손해보험업계는 책임보험 및 운송보험 사업에 더욱 주력한 결과 이 분야에서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R&D 및 서비스투자 비용이 절감되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임.
  - 실제로 올해 상반기 외자계 손해보험회사 책임보험과 운송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중국 손해보험회사 평균치를 훨씬 밑돌며 각각 27.1%, 40.4%를 기록해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의 수익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해방일보, 7/27)